

## 중국의 해양안보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방안

일 시 : 2018. 01. 31.(수), 10:00

장 소 : 충남연구원 1층 회의실

## 제27회 충청중국포럼

- ◆ ‘충청중국포럼’은 2015년 5월 출범 이후 충남도와 시, 군 중국교류 관련 업무 담당자의 주도적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와 교류의 장으로 개최, 운영되어 왔음
- ◆ 이번 제27회 충청중국포럼은 중국 북경대학교 정원식 박사를 초청해 ‘중국의 해양안보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자 함

### ■ 행사개요

- 주 제 : 중국의 해양안보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방안
- 일 시 : 2018. 01. 31.(수) 10:00~12:00
- 장 소 : 충남연구원 1층 회의실
- 연 사 : 정원식 박사(북경대학교)
- 참 석 : 충청남도 및 각 시군 중국교류업무 담당자 및 관심있는 모든 분

### ■ 행사일정

시 간	주요내용	비고
10:00~10:05	개 회	사회: 박경철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인사말씀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
10:05~11:35	발제 ▶ 중국의 해양안보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방안	정원식 (중국 북경대학교 박사)
11:35~12:00	종합토론 ▶발표자, 참석자	
12:00	폐 회	

## ■ 정원식 박사 프로필

### ◆ 학 력

- ❖ 건국대학교 영문학(학사)
- ❖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정치학(석사)
- ❖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박사)

### ◆ 경 력

- ❖ 육군 R.O.T.C 정훈공보장교 대위(1996년 2월~2002년 6월)
- ❖ 일본 외무성 산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방문연구원(2012년 3월~2013년 3월)
- ❖ 일본 사사카와평화재단 장학생/일본재단 국제교류기금 장학생
- ❖ 중국 북경시정부장학생(석사과정)/중국정부장학생(박사과정)

### ◆ 연구실적(집필/번역)

- ❖ 『2010 중국재발견』 (공저), 차이나 하우스
- ❖ 『타이항산 아리랑』 (공저), 차이나 하우스
- ❖ 『중국외교의 창조적 개입』 (역서), 차이나 하우스
- ❖ 『2049년 중국의 해양강국전략』 (역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2018년 2월 출판 예정)



# 중국의 해양안보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방안

정원식 박사  
(북경대학교)

# 중국의 해양안보전략과

## 우리의 대응 방안

### 정 원 식 박사

(베이징(北京)대학 국제관계학 전공)

#### I. 서론

왜, 우리는 지금 中國의 海洋安保戰略을  
논(論)해야만 하는가?

##### 1. 중국의 지정학적 해양강국 부상

- 1) 동아시아 세력균형의 불균형화= 지역 불안정성 증가 초래
- 2) 중미 양국 간 세력경쟁 격화=> 중·미 간 한국에 선택 강요

##### 2. 남·동 중국해 해상교통로 불안전성 증가

- 1) 남중국해: 전세계 연간 화물운송량 40% 운송(5조달러)/  
중국: 80%·한국/일본 : 60%~ 70%

##### 3. 한국의 해양안보 및 해양권익 침해

- 1) 황해의 내해화: 동경 124도 10분 기준 이서(以西)해역=>  
한국 해군활동 견제=>한국 해군 동경123도(중국방향)활동 강화
- 2) 이어도(쑤옌지아오: 蘇岩礁) 주변 배타적 수역: 중국 관할해역  
주장/CADIZ포함 선포/전투기/폭격기 출격=>KADIZ 무력화 시도
- 3) 불법어업행위=>한국어민 막대한 피해 유발

## Ⅱ. 본론

### 1. 중국의 해양안보전략 형성 및 배경

#### 1) 고대 전통왕조시기(BC. 221~AD.1839년:1,960년)

- (1) 대륙중심관 견지(농경산업/북방민족 생존권 위협)/해금정책
- (2) 당·남송:해상무역 번창/해양강국=>원·명·청:자급자족정책/해양진출 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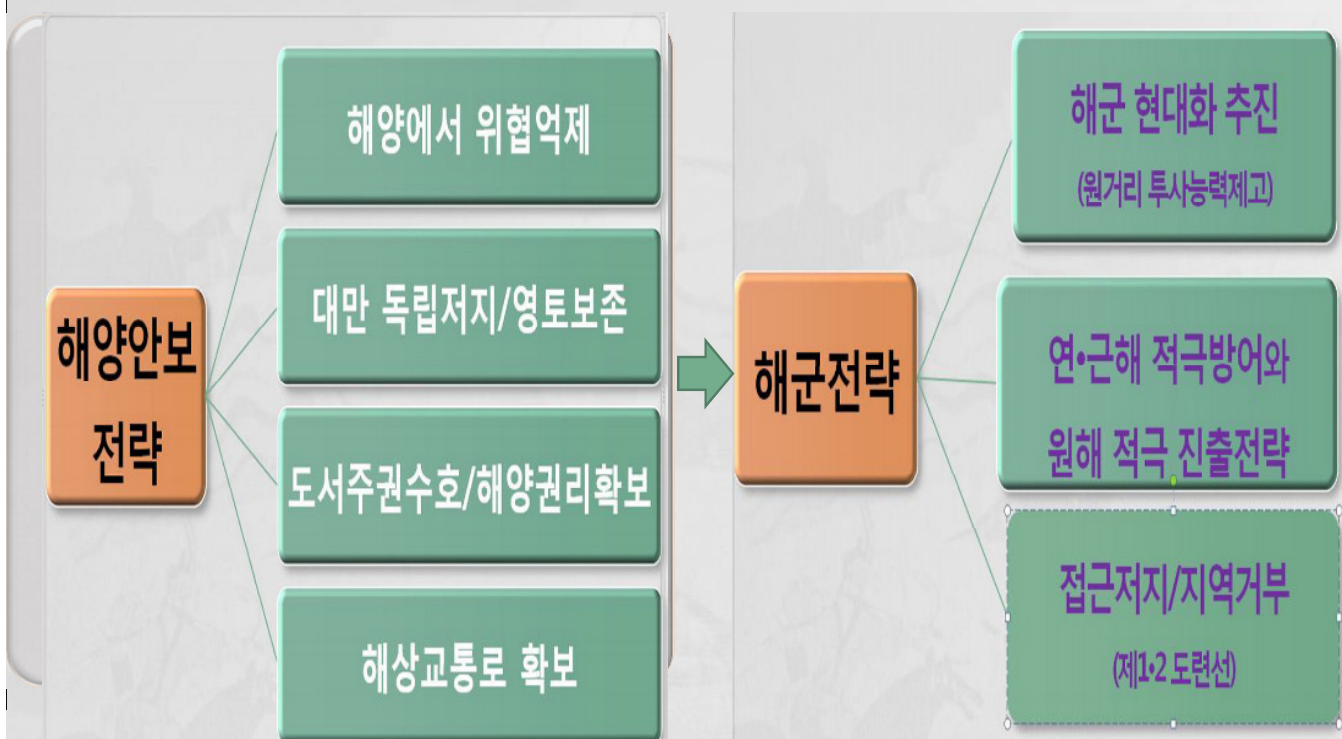
#### 2) 근·현대시기(1840년~1949년:109년)

- (1) 제1·2차 아편전쟁=>청불전쟁=>청일전쟁=>중일전쟁 등 열강470회 침략  
=>그 중에 84회 해양에서 국가존망 초래=>해양안보 트라우마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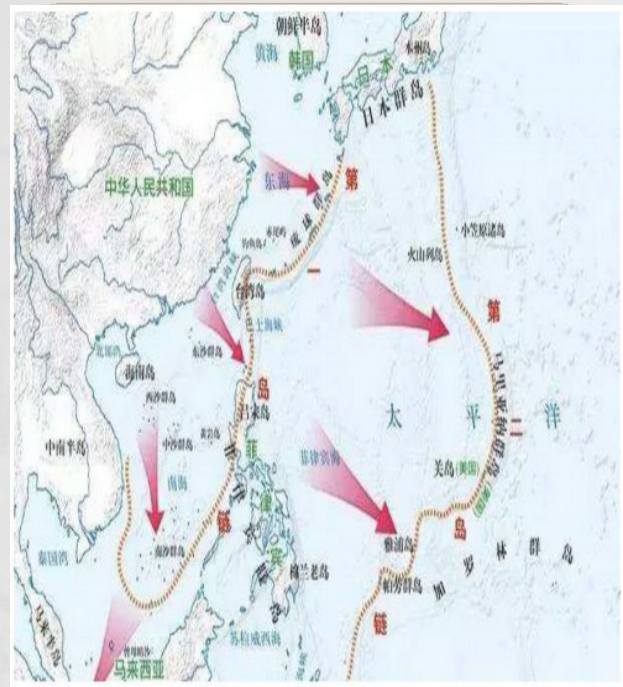
#### 3) 당대시기(1949년10월1일:중화인민공화국 건국~2018년 1월:현재)

- (1) 마오쩌둥:영해선 선포/해군력 육군 보조 수단(연안방어 수준)
- (2) 덩샤오핑:국가경제발전 동력으로 해양인식/근해/원해 적극방어 개념 정립
- (3) 장쩌민/후진타오:해양권익 수호:제도정비/국가 핵심이익 격상
- (4) 시진핑:중국몽(중화 부흥)=>해양강국화 선포=>대양해군 추구:  
항모/함대/잠수함/지대함중장거리 미사일 개발=>해양주도권 장악

### 2. 중국의 해양안보전략과 해군전략



# # 1. 중국의 해상방위 전략



## 3. 해양군사전략 변화 및 발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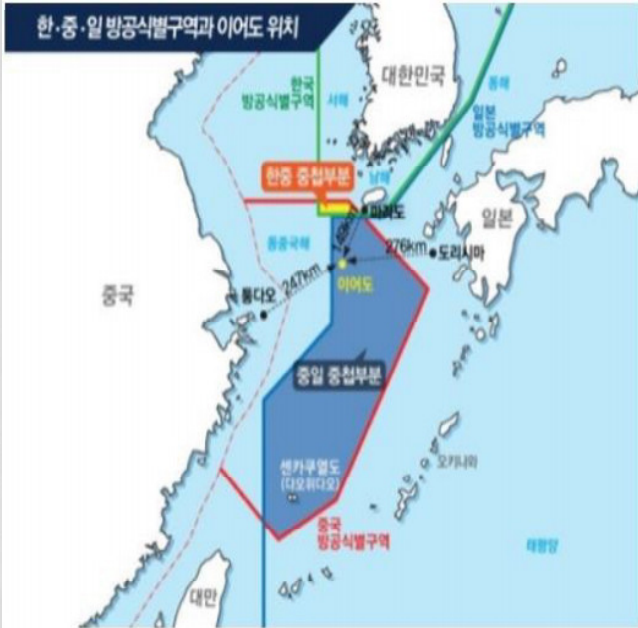
구 분	1949년 ~ 1981년	1982년 ~ 2000년	2001년 ~ 2020년	2021년 ~ 2050년
전략개념	연안방어	근해방어	지역 전진 적극방어	원양전진 방어
방어방위	해안/연안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제3도련선
작전범위	150km	150km ~ 600km	1,350km ~ 1,500km	1,500km 이상
전략목표	인민전쟁	해상통제	해상거부	원양방어



## # 2-1. 중국의 해양안보전략 강화 조치

### CADIZ (방공식별구역선포)

한·중·일 방공식별구역과 이어도 위치



### • 남중해 도서 군사화

최근 4개월간 인공섬 공사상황

2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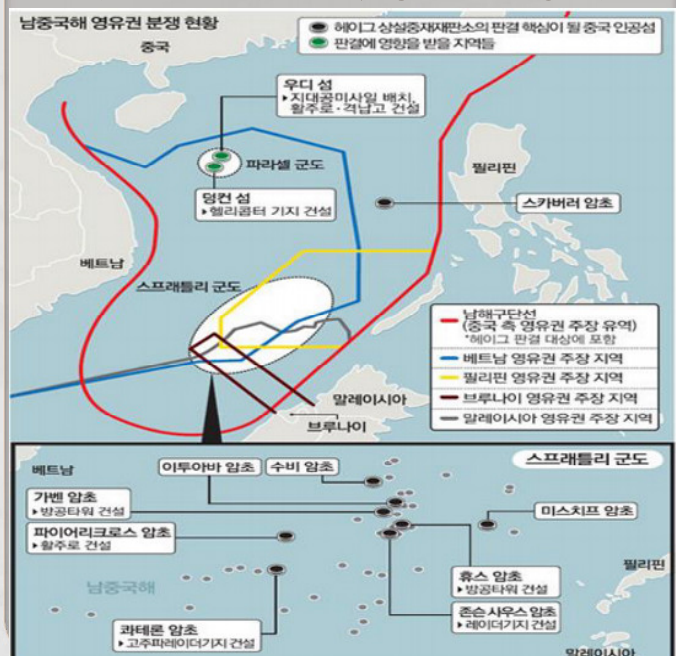


## # 2-2. 중국의 해양안보전략 강화 조치

### 조어도/센카쿠열도 분쟁화



### 남중국해 도서영유권 강화





## 4. 해양안보전략과 일대일로 국가전략

- 1) 해양안보:진주목걸이전략(서남아/동아프리카 거점 해군항 구축)  
=>국가전략:해상실크로드 지원



## #3. 반점근/지역거부 운용 전투력 현황

전투영역		전력 및 전투력향
해양전력	근해 해군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안 및 근해방어 순항미사일</li> <li>- 대지공격 순항미사일, 장거리 대함 순항미사일</li> <li>- 재래/백중수함 (Kilo SS, Song SS, Yuan SSP, Shang SSN)</li> <li>- 해상전투함 (Luyang I/II/DDG 052 series, Luzhou DDG 051C, Sovremenny II DDG, Jiangkai II FFG 054A, Jiangdao FFL 056)</li> <li>- 해양공격전투기 (JH-7/A, H-6G, SU-30MK2)</li> </ul>
	전투력 투사	- 각종 전투함, 잠수함
	대양 해군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오닝 항공모함(Kuznetsov급)</li> <li>- Luyang-III DDG, Jiangkai-II FFG, Jiangdao FFL</li> <li>- 081급 헬기 탑재 공격함</li> </ul>
	전투기/무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u-27/Su-30, J-10, J-11B</li> <li>- 폭격기(장거리 순항미사일 탑재)</li> <li>- BZK-005(장거리 공중무인기), 전투공중무인기</li> </ul>
공중/방공	방공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거리 SAM(HQ-9, SA-10, SA-20 PMU1/PMU2)</li> <li>- S-400(400km)</li> </ul>
	전투력 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20 스텔스 전투기</li> <li>- 항공용 ASCM(Anti Ship Cruise Missile)</li> <li>- H-6 폭격기 탑재 장거리 순항미사일</li> </ul>
	탄도탄방어(MD)	- SA-20 PMU2(2,000km), CSA-9(500km)
미사일	공격탄도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RBM, CJ-10 Cruise missile</li> <li>- ASBM: DF-21(CSS-5), DF-21D</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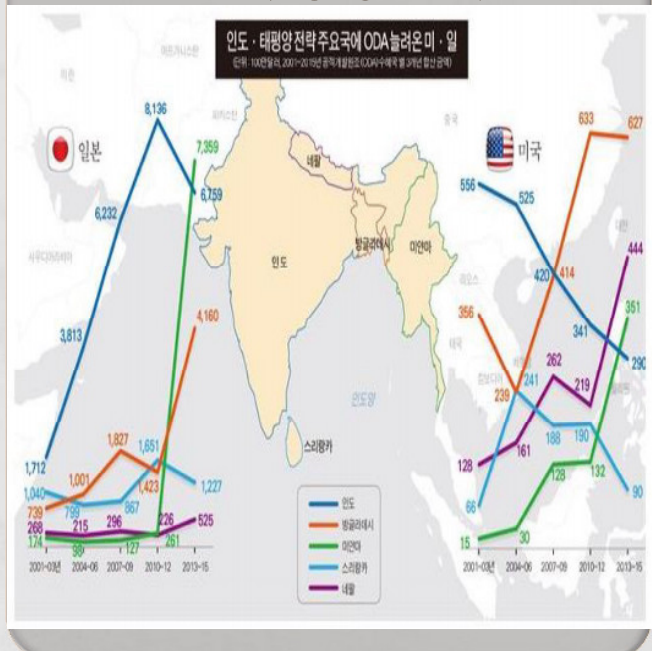


## 5.1 미·일 대중국 해양안보전략 대응

## • 미일 다이아몬드 전략



- 인도-태평양전략



## 5.2 미·일과 중국 간 대잠수함 대응 현황

<미일 TGT삼각해협 대중잠수함 감시망>



### <미일과 중국 간 잠수함 탐지 장비구축>





# III.결 론

## 1.중국의 해양안보전략 평가

- 1)시진핑정부:중국의 꿈(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해양실크로드 통한 실현  
=>해양강국전략 선포=>해군력에 기초한 공세적 태도전지.
- 2)중국의 공세적 태도는 동아시아 역내 세력균형을 변화시켜 역내 미·중 간  
세력경쟁과 갈등을 증가시켜 역내 군사안보적으로 불안정성을 야기하여  
궁극적으로 <투키디데스함정>에 직면할 수 있음.
- 3)또한, 중국은 제1·2도련선 해역 내 거부전력을 통해 미 해·공군력의 접근에  
위험성을 배가시켜 미군의 행동자유 박탈/미국의 영향력 축출과 도서 및 해상에  
서 자국의 통제 강화=>동아시아 분쟁국들을 <핀란드화>=>패권국가로 나아감.
- 4)이러한 중국의 전략의도에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압도하여 역내 동맹국들  
에게 방위공약 준수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재확인=>미국에 도전의지를 낮출  
수 있는 위험분산(헤징)전략 필요.

## 2. 우리 한국의 대응방안

### <이어도 해역>



## 1. 국내적 대응방안

- 1) 해양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제주 해군기지 건설 시 국론분열과 갈등 유발=>국가 안보력 저해.
- 2) 해군 기동함대 창설, 핵추진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최첨단 항공전력(스텔스전투기/급유기/피스아이) 등 집중적인 해공군력 전력 보강 절실=>제주에 유사시 사용 가능한 전투 비행장 건립 제안(모슬포비행장).
- 3) 해군과 해경 상황공유 가능한 C4ISR체계 구축=>무장/군수 분야 상호 운요성 증진=>이중 투자 예방=>전력 공동 사용=>비용절감 등 다방면에서 시너지효과 극대화.

## 2. 대외적 대응방안

- 1) 한미동맹 강화와 중국과 신뢰구축 위한 협력 지속 증진=>단, 국가안보 위해 중국과 싸울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 견지=>핀란드화 기도 저지및 중국 전략/전술적 오판방지=>미중관계에서 딜레마 극복.
- 2) 일본과 동아시아 해양분쟁국들과 유기적인 협력과 일관된 원칙 견지=>상황논리에 기초한 무원칙 대응은 자치 우리의 해양권익을 약화 가능

## 시진핑 지도부의 해양 전략 방향

-2017년 국방백서 ‘중국의 아태안전협력정책’의 분석 중심으로-

- ◎ 2012년 11월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선출 되고 2013년 3월 국가주석에 취임한 시진 핑은 2013년 7월 거행된 제8차 중앙정치국 집체학습에서 “중국은 육상대국이자 또한 해양대국이며, 광범위한 해양 전략 이익을 가지고 있다(我國既是陸地大國，也是海洋大國，擁有廣泛的海洋戰略利益)”고 발언 하며 해양 정책의 지속적인 강화의 의지를 보임
- ◎ 시진핑 시기의 중국은 ‘해양대국’의 목표로 나아가며 현실적으로 마주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영토와 영해분쟁, 이로 인한 주변국들과의 마찰과 갈등 고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균형 정책’을 통한 미국의 개입을 염두에 두고 해양 정책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를 강조하고 있음
  - 공식적인 해양 정책으로는 경제 분야를 공개적으로 앞세우고 해양 안보 분야는 중국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며 차분히 역량을 강화하는 모습임
- ◎ 2017년 1월 중국의 국방백서인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안전협력정책(中國的亞太安全合作政策)’이 발간되었음
  - 제1장 ‘중국의 대(對)아시아태평양 안전 협력의 정책 주장’에서는 아·태지역이 여전히 많은 불안정, 불확정 요인들과 마주하고 있다고 진단함
  - 특히 한반도 및 아프가니스탄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역내에서 영토 주권과 해양권익 분쟁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함
  - 영토와 해양권익의 쟁의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 국제법과 현대 해양법, ‘UN 해양법협약’을 포함하는 기본원칙과 법률제도를 기반으로 직접적인 관련 당사국 간의 대화와 담판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주장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는데 진력한다는 정책적 기본 방향이 변하지 않을 것이며, 직접 당사국 간의 우호적인 협상과 담판을 통해 영토와 해양권익의 쟁의를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해결하는데 진력을 다할 것이라는 정책적 주장 또한 바뀌지 않을 것이란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언급하고 있음
  - 나아가 북핵 문제와 아프가니스탄 등 지역 현안들의 평화적인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책임 대국의 역할을 발휘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 기술함
- ◎ 제4장 ‘중국의 지역 분쟁 문제상의 입장과 주장’에서는 따로 5절에서 해상문제를 다루며 해상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각국의 공동이익이자 공동인식이라고 기술함
  - 하지만 비전통 해상안전 위협이 상승하는 형태이며, 적지 않은 해역의 생태환경이 파괴되고, 해양재해가 빈번하고, 위험 화학품 누출, 해적, 밀입국, 마약, 그리고 국가 간의 전통 안전 영역에서의 오해 존재, 상호 신뢰 부족 등이 해상안전



- 에 위협을 불러 오고 있다고 지적함
- 중국은 이러한 해상문제를 ‘UN 헌장’과 동 백서의 제1장에서도 언급한 국제법과 현대 해양법, ‘UN 해양법협약’에 따른 기본원칙과 제도, 그리고 중국 전통의 외교 원칙인 ‘평화공존 5원칙’에 따라 해결한다는 입장임
- 또한 해상의 평화와 안전은 지역 국가들의 공동책임이자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함. 따라서 지역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으로 도전에 대응하고 해상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힘

◎ 특히 제4장의 5절은 중국의 당면한 해상문제를 기술하고 있으며 ①남중국해 문제와 ②일본과 동중국해에서 존재하는 다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열도) 및 해양경계 획정 문제, 그리고 ③한·중 간의 해양경계 획정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남중국해 문제에서는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침범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도발 행동에 대해서는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 명시함
- 동중국해 문제에서는 다오위다오와 부속도서는 중국의 고유영토임을 기술 했으며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일본과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기술함
- 이 절에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한국과의 경계 획정 문제를 언급하며 양국은 폭 넓고 깊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2015년 12월부터 협상을 시작하였다고 적고 있음

◎ 2017년 중국 국방백서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2013년도와 2015년도의 중국 국방백서에는 언급이 없었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한 기술임

- 일대일로에 대한 언급은 두 번에 걸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제1장 ‘중국의 대(對) 아태안전협력의 정책주장(中國對亞太安全合作的政策主張)’에서 공동발전을 위해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실크로드 기금을 건립한 점을 기술함
- 이어 중국은 각국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하고 상호이익과 공동번영의 실현을 강조함
- 두 번째는 제3장 ‘중국과 지역 기타 주요국과의 관계(中國與地區其他主要國的關係)’ 제2절 ‘중·러관계’에서 양국의 우호 관계와 전략적 협력의 발전을 강조하며 일대일로와 러시아가 추진하는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EEU: Eurasia Economic Union)’의 연결과 협력을 기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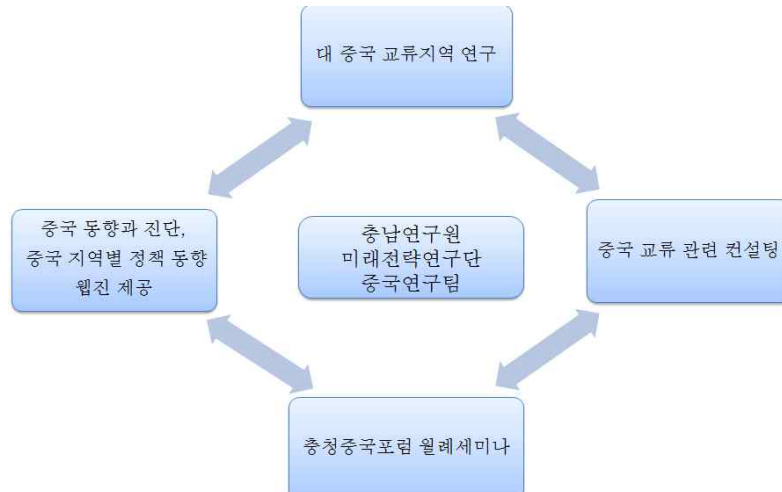
출처: 김한권(2017), “중국의 해양 전략 I: 해양 전략의 제조적 변화과정”,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12』, 외교안보연구소.



## 충청중국포럼 소개

‘충청중국포럼’의 목적은 충청도와 15개 시·군의 중국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중국의 부상에 따른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중국관련 지식과 정보, 그리고 대(對)중국교류 관련 업무추진 경험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중국포럼’은 지방차원에서 대(對)중국교류와 전략을 주도하기 위한 지자체와 관련업계 전문가들이 중국관련 지식과 정보, 경험을 교류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은 충청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관련 조사·연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충청중국포럼’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한편으론 충청도 및 각 시·군의 교류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연구를 진행하면서, 또 한편으론 ‘충청중국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자문, 서비스 제공, 월례포럼 개최, 그리고 ‘중국 동향과 진단’, ‘중국 지역별 정책동향’ 등 중국 관련정보의 정기 발간과 온·오프라인 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청중국포럼’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서, 충청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와 전략을 주도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신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충청중국포럼’ 추진현황〉

회	일시	세미나 주제	강사
1회	2015.5.26	<충청중국포럼 출범식> ‖한중 지방자원의 관·산·학 교류 협력 방안 ‖철강도시의 미래	‖강희정(한밭대학교 국제교류원장) ‖홍원표(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2회	2015.6.25	‖뉴노멀 중국경제와 충남경제의 시사점	‖김한수(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본부장)
3회	2015.8.26	‖징진지 일체화 정책 추진동향과 충남의 시사점	‖김부용(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4회	2015.9.14	‖한중3농포럼	
5회	2015.10.28	‖중국 신형도시화와 3농문제 ‖중국 성장전략 전환과 한국의 기회	‖리홍보(중국쿤밍이공대학 교수)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박사)
6회	2015.11.25	‖지방의 대(對)중국 전략	‖한광수(금강대학교 총장)
7회	2016.1.27	‖역사적 관점에서 본 환황해권 문화자산 활용 방안 모색	‖이경복(충남역사문화연구원 기획팀장)
8회	2016.2.24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민원 유형과 대응전략	‖양광식(광양자유무역역청 투자유치팀장)
9회	2016.3.30	‖한중 FTA 발효와 충남 제조업에 대한 영향	‖남수중(공주대학교 교수)
10회	2016.4.20	‖한중 사회적경제 국제세미나	
11회	2016.5.25	‖중국의 당·정·군 관계 및 대(對)한반도 정책	‖조현규(국방부 25사단 부사단장, 前주중한국 대사관/주대만한국대표부 무관)
12회	2016.6.29	‖충남관광 현황과 중국인관광객 유치전략	‖고두환(공정여행사 공감만세 대표)
13회	2016.8.31	‖일대일로를 둘러싼 중국 동북3성의 동향과 충남에의 시사점	‖홍원표(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14회	2016.9.28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	‖박인성(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15회	2016.10.26	‖중국의 지식재산권 정책동향 및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서동욱(특허청 과장, 前주중한국대사관 참 사관)
16회	2016.11.30	‖중국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환황해권 항만 의 대응전략	‖이주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향분석실 장)
17회	2017.1.18	‖중국 주식시장의 추세와 전망	‖고정식(배재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18회	2017.2.22	‖교육과 해외인재유치를 통한 중국의 발전전략	‖구자역(서경대 인성교양대학 학장)
19회	2017.3.29	‖중국 농업과 농촌의 변화: 옌타이(烟台)·펑라이 (蓬萊)의 포도와 와인산업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20회	2017.4.25	‖대중국 지방외교의 과제와 전략	‖홍원표(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21회	2017.5.30	『환황해권 지방외교 활성화 합동 워크숍』	
22회	2017.6.29	『2017년 충남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 한중 FTA 현황 소개』	『조광옥(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장)』
23회	2017.8.30	『중국의 미래권력 전망』	『홍인표(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 교수, 前 경향신문 부국장)』
24회	2017.9.25	『생태문명 전략과 농촌 발전: 중국 현대 농업 정책의 해독』	『원테권(중국인민대학 농업과 농촌발전학 원장/지속가능발전고등연구원장)』
25회	2017.11.29	『사드 이후의 중국문화산업 전망』	『이건웅(차이나하우스 대표)』
26회	2017.12.13	『공주대학교-충남연구원 공동세미나』	
27회	2018.1.31	『중국의 해양안보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방안』	『정원식(중국 북경대학교 박사)』



[illegible]

[illegible]